

이주환·김희곤·백종헌 의원 공동주최 '온천천 환경개선 + 활용방안 토론회' 성료

✎ 김옥빈 기자 | ㉠ 승인 2020.07.10 16:01

9일 오후 부산시청서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 토론회' 개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미래통합당 이주환, 김희곤, 백종헌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 주제의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10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김희곤, 백종헌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이주환 의원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온천천이 전국적으로 하천 개발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온천천 주변의 안전 강화와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래, 금정, 연제구가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그동안 온천천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주된 초점이 되어 왔지만, '온천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의 삶으로 더 가깝게 끌어들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온천천을 웰빙과 휴식,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 체험 트레킹 코스와 온천천 생활 걷기 대회 등을 만들어 서울의 청계천 못지않게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하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부산지역 지방 2급 하천 중 하천환경개선 사업이 가장 최초로 수행된 곳으로, 꾸준히 하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우 시 발생하는 하수관거 월류수 및 비점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물고기 집단 폐사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현행 하천정비 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바람직한 자연형 하천사업의 방향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 등을 점검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김희곤, 백종헌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이주환 의원실

'시민들이 바라는 온천천 개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주기재 교수(부산대 생명과학과)는 "무분별한 공사, 시민 불만족, 생태계 건강성 개선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온천천 통합 관리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며 "90년대 후반에 이룬 온천천 개선 노력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하천으로 진화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천천 통합관리방안'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양진우 연구위원(부산연구원)은 "온천천은 부산시와 자치구의 이원화 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되, 수질오염원과 유지수량 등은 공공위탁을 포함해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행정구역별 관리에서 하천 전 구간 대상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천천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법과 제도 현황'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부산시는 낙동강 유수 변경 등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았던 북구, 강서구, 사상구 간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며 "금정, 동래, 연제구 주민들께서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 공론화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토론자로 나선 이수봉 과장(부산시 하천관리과)은 "부산시는 비점저감시설 조성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천환경보전 등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손정원 연구원은 토론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온천천은 휴식과 운동뿐 아니라, 자연을 접하고 시민의 정서가 접목된 하천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께서 온천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생태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바라는 온천천 개선'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주기재 교수(부산대 생명과학과)

온천천네트워크 이준경 대표는 "2009년 일시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긴 했지만, 유아무야 넘어가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질이 악화됐다"며 "오늘 토론회 이후로 통합 관리 4.0의 신호탄을 쏘는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천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부산시 자치분권과 정임수 과장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수요는 상시 조사 중이고, 일부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개편이 된 사례들이 많다"면서 "통합 관리는 필요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재호 교수(부경대 행정학과)는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 자치구의회 또는 시의회 차원의 공동 조례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유재중 전 의원과 박대해 전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600명이 참석했다.



김옥빈 기자 obkim5153@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